



푸른 하늘을 꿈꾸는 두 브랜드의 만남: 새로운 카키 세라믹 소재의 제니스 X 포터 파일럿 컬렉션

2024년 10월 18일, 르 로클: 제니스와 일본의 아이코닉한 백 브랜드 포터(PORTER)가 손을 잡고 여행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도 두 브랜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반영한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입니다. 이들의 시각으로 2가지 제니스 PILOT 모델이 카키 세라믹 소재로 새롭게 재해석되었으며, 포터가 제니스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맞춤형 백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500피스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PILOT Automatic 과 PILOT Big Date Flyback 크로노그래프를 만나보세요.

여행의 예술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넘어 여정 그 자체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니스는 항공 분야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전문적인 시계 및 장비를 통해 탁 트인 하늘을 새로운 탐구 대상으로 삼았던 이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제니스의 설립자 조르주 파브르-자코(Georges-Favre Jacot)는 일찍이 1888년에 항공 분야의 잠재력을 인식하여 프랑스어 "필로트(Pilote)"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일럿(Pilot)"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제니스 PILOT 컬렉션은 제니스 브랜드에서 가장 오랫동안 출시된 컬렉션으로, 항공 시계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터는 일본의 제조업체 주식회사 요시다(Yoshida & Co.)가 1962년에 설립한 브랜드로, 미니멀하고 기능적이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백과 액세서리로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호텔에서서의 전통적인 짐꾼을 지칭하는 명칭을 본뜬 포터는 고급 소재와 아주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바탕으로 밀리터리 디자인에서 큰 영향을 받은 매력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는 함께 여행에 대한 공통의 가치와 열정을 기념하면서 자연스럽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항공 분야의 과거와 현재에서 영감을 받은 제니스의 PILOT 컬렉션이 완전히 색다른 디자인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내구성, 가독성, 직관성이라는 핵심 코드를 담아 모던한 버전으로 재해석한 PILOT 컬렉션은 포터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완벽한 캔버스가 돼주었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탄생한 타임피스는 제니스 특유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이제 모던하고도 클래식한 디자인에 포터만의 감각을 더한 2가지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리미티드 시리즈의 첫 번째 타임피스는 **PILOT Automatic PORTER 에디션**입니다. 독특한 플랫폼 라운드 베젤을 갖춘 40mm 케이스는 카키 세라믹 소재로만 제작되며, 포터 백의 시그니처 컬러를 연상시키는 올리브 톤을 더해 완성되었습니다. 표면이 완전히 매트하게 마감 처리된 케이스는 확연히 견고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제니스 PILOT 시계를 특징짓는 블랙 PVD 스틸 오버사이즈 크라운은 각진 형태로 더욱 세련된 감각을 자아내며 그림감이 뛰어난 만큼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흙 디테일로 풍성한 텍스처를 더한 다이얼은 많은 구형 항공기 기체를 구성하는 메탈 시트의 주름진 외관을 연상시킵니다.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카키 톤으로 완성된 다이얼에는 제니스와 포터의 브랜드명이 장식되어 있으며, 아워, 미닛, 세컨즈 핸드는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 한해 밝은 오렌지 톤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어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포터의 여러 백 제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렌지 컬러의 안감을 연상시키며, 구조 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 재킷의 안쪽 면에 오렌지 컬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버사이즈 야광 아라비아 숫자는 유려한 폰트로 구현되었으며, 화이트 슈퍼 루미노바를 채운 메탈 마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카키 컬러의 날짜 휠에 화이트 컬러를 가미한 6 시 방향의 날짜창 위, 평평한 화이트 라인 디자인의 야광 아워 마커는 항공기의 인공 수평의 장비를 떠오르게 합니다. 제니스 매뉴팩처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근간과도 같은 다이얼에는 "Pilot" 서명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용어를 다이얼에 새길 수 있는 권리는 제니스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랙 PVD 스틸 소재의 케이스백에서는 특별한 포터 로고가 장식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통해 엘 프리메로 3620 고진동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에게 지구 수평선에 대한 항공기의 방향을 알려주는 "인공 수평의" 계기판 장비를 연상시키는 블랙 컬러의 오픈 로터는 6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전체 룩에 풍성함을 더해 줄 PILOT Automatic PORTER 에디션은 2 가지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포터에서 공급받은 견고한 나일론 소재로 완성된 첫 번째 카키 나일론 스트랩은 오렌지 벨크로 디테일과 스티치로 완성된 시그니처 포터 로고가 돋보입니다. 두 번째 스트랩으로는 블랙 PVD 스틸 폴딩 버클을 갖춘 카키 코듀라 효과의 러버 스트랩이 제공됩니다. 스트랩은 간편한 교체 메커니즘을 갖추어 별도의 도구 없이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늘을 누비는 자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담은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두 번째 타임피스는 **PILOT Big Date Flyback PORTER 에디션**입니다. 쓰리핸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직경 42.5mm 로 완성된 카키 세라믹 케이스에는 블랙 PVD 푸셔와 크라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신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를 갖추어 PILOT 모델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 타임피스는 조종사들이 사랑하는 2 가지 기능인 대형 날짜창과 플라이백 기능이 돋보입니다.

뛰어난 가독성을 고려하여 완성된 풍부한 텍스처의 카키 다이얼에는 타임키퍼 및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위한 오렌지 컬러의 핸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크로노그래프의 30 분 카운터는 외곽선에 오렌지 및 화이트 컬러를 번갈아 배치하여 5 분 단위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키 디스크 위, 화이트 컬러로 숫자가 표시되는 오버사이즈 날짜창은 특허 받은 최첨단 컴플라이언트 메커니즘으로 구동되어 불과 0.03 초 안에 두 개의 대형 날짜창 휠을 움직이고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원래 두꺼운 양가죽 장갑을 착용하던 조종사들을 위해 고안되었던 플라이백 기능을 활용해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제로(0) 위치로 되돌린 다음 재시작할 수 있어, 중단 후 재시작할 필요 없이 연속된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만큼 조종사의 작동 방식 또한 보다 간결해졌습니다.

"인공 수평의" 로터를 갖춘 엘 프리메로 3652 오토매틱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에 직사각형 포터 로고가 장식된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쓰리핸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PILOT Big Date Flyback PORTER 에디션 또한 포터의 카키 나일론 벨크로 스트랩과 블랙 PVD 스틸 폴딩 버클을 갖춘 카키 코듀라 효과의 러버 스트랩이 제공되며, 두 스트랩 모두 간편한 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콜라보레이션에는 포터의 백과 액세서리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포터는 제니스와 2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 PILOT 모델만을 위해 시계 박스를 넣을 수 있는 새로운 메신저 백을 선보입니다. 외부는 포터의 아이코닉한 카키 컬러로, 내부는 제니스만을 위해 특별히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제니스의 시그니처 블루 컬러로 구성된 이 백에는 포터와 제니스의 로고가 함께 장식되어 있습니다.

PILOT Automatic PORTER 에디션과 **PILOT Big Date Flyback PORTER 에디션**은 각각 500 피스 한정 제작되며, 전 세계 제니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포터 소개

주식회사 요시다는 1935년, 백 장인인 요시다 기치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자체 브랜드, "포터"의 역사는 1962년에 시작되었으며, "바늘 한 땀 한 땀에 영혼을 담는다(Heart and Soul into Every Stitch)"는 회사의 모토를 따라 일본에서 제작된 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터라는 브랜드명은 호텔 및 물품보관소에서 백을 파악하고 고객의 짐을 보관했던 짐꾼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PILOT CENTRAL AUTOMATIC PORTER

레퍼런스: 49.4001.3620/63.1001

핵심 사항: 쉽게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엘 프리메로 쓰리핸드 시계, 고진동 무브먼트(5Hz)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20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약 6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센트럴 세컨즈 핸드, 6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마감: 특별한 “파일럿 인공 수평의” 블랙 로터

가격: 10,900 스위스 프랑 / 11,800 유로

소재: 카키 세라믹

방수: 10ATM

케이스: 40mm

크리스탈: 양면에 반사 방지 처리한 돔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가로로 난 홈 디테일을 더한 카키

아워 마커: 슈퍼 루미노바 SLN C1 처리된 아라비아 숫자

핸즈: SLN C1 처리된 블랙 & 오렌지

브레이슬릿 & 버클: 블랙 PVD 스틸 폴딩 버클이 장착된 카키 “코듀라” 효과의 러버 스트랩, 포터의 견고한 카키 나일론 패브릭 .





PILOT BIG DATE FLYBACK PORTER

레퍼런스: 49.4001.3652/63.1001

핵심 사항: 0.007초만에 구현되는 즉각적인 대형 날짜창 점프, 쉽게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플라이백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6시 방향에 특히 받은 대형 날짜창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52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약 6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6시 방향에 즉각적인 대형 날짜창,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3시 방향에 위치한 30분 카운터

마감: 특별한 "파일럿 인공 수평의" 블랙 로터

가격: 14,900 스위스 프랑 / 16,200 유로

소재: 카키 세라믹

방수: 10ATM

케이스: 42.5mm

크리스탈: 양면에 반사 방지 처리한 돔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가로로 난 홈 디테일을 더한 카키

아워 마커: 슈퍼 루미노바 SLN C1 처리된 아라비아 숫자

핸즈: SLN C1 처리된 블랙 & 오렌지

브레이슬릿 & 버클: 블랙 PVD 스틸 폴딩 버클이 장착된 카키 "코듀라" 효과의 러버 스트랩, 포터의 견고한 카키 나일론 패브릭 .

